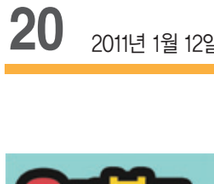
요절복통 여래네 집

#40. 송액영복(送厄迎福)



스튜디오 돌

어느 틈에 호랑이해 경인년이 가고 신묘년이 밝았습니다,

어떤이는 한 살 더 먹는게 기쁘고, 어떤이는 한 살 더 먹는게 슬픕니다,

띠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여래엄마 후배 중에 자신이 돼지띠라는게 창피해서 감추고 살았던 사람이 있대요,

그 후배는 초등학교 3학년이 돼서야 같은 반 친구들이 모두 돼지띠라는 사실에 겨우 안심을 했답니다,

따지고 보면 십이지신 모두 신들인데 더 좋고 나쁨이 어디 있겠어요,

이주일의 화두

함부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
오늘 아침엔 비록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했지만
내일 반드시 나의 허물을 말할 것이다 - 자경문 -